

여수에 모인 한상들, 새로운 100년 모색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강경화 장관 등 1천여명 참석
김영록 지사 "빛나는 성공 기원"

세계 속 한상들과 국내 경제인들의 교류의 장이자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경제행사인 '제18차 세계한상대회'가 22일 개최식을 시작으로 3일 일정의 화려한 막을 열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여수세계박람회장장에서 열린 이번 한상대회 개최식에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영록 전남지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상구 18차 세계한상대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그리고 박항서 베트남 축구대표팀 감독을 비롯한 국내외 동포와 경제인 1천200여명이 참석했다.

국군 군악대의 웅장한 전통의장대 모듬북 공연으로 막을 연 개최식은 한우성 이사장의 개회사와 강경화 장관의 문재인 대통령 축하 대독 등에 이어 주제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이제 세계인에게 한상은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이름이 됐다"며 "한상을 만날 때마다 대통령으로서 커다란 자부심을 느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상들은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가며 현장에서 쌓은 식견을 중소기업과 청년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고 다양한 장학사업을 통해 청년들의 꿈을 응원해 왔다"면서 "한



22일 오후 여수세계박람회장장에서 열린 제18차 세계한상대회 기업전시관 개막식에서 윤병태 전남도 정무부지사,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고상구 세계한상대회장, 권오봉 여수시장 등 내빈들이 전남도 부스를 찾아 유인드론 설명을 듣고 있다.

상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이번 한상대회에서 개성공단과 평화경제 미래, 신경제 다변화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들었다"며 "한상들의 네트워크 역량과 경험을 함께 나누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한상들의 전남 방문을 환영했다.

김 지사는 "유라시아 대륙의 관문, 국제해양 관광도시를 방문해준 한상 여러분을 200만 도민과 함께 뜨겁게 환영한다"며 "최초의 한상인 장보고의 고향인 전남에서 한민족 최대 경제 네트워크 행사인 한상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김 지사는 "한상대회는 세계 200여개국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하는 한민족 최대 경제 네트워크 성장했으며 한상들은 적박한 환경 속에도

한민족 특유의 끈기와 집념으로 성공신화를 이어왔다. 애국자이자 민간교사절은 한상은 우리경제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후원자"라면서 "한상과 함께 하는 새로운 100년, 빛나는 성공을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한상대회는 전남 우수기업 100곳을 포함한 250개 기업이 참여하는 기업전시회, 케이푸드 트레이드쇼, 전남도 혁신기술 구상담회 등 다양한 행사가 계속된다.

"청년들에게 한상의 정신을 알려주고 싶다"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제18차 세계한상대회를 주관하는 재외동포재단 한우성 이사장은 22일 "세계한상대회를 통해 넓은 세계로 나아가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청년들에게 한상의 정신을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한 이사장은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장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 개막 기자간담회에서 "한상대회가 그동안 한상과 국내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컨벤션 성격이 강했지만 지난 17회부터 성격이 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5천200만 내국인과 750만 재외동포가 서로 힘을 합쳤을 때 국가적으로 좋은 일이 있었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며 "독립과 산업화는 동포와 내국인들이 힘을 합친 아름다운 결과물로서 그 연장선상에 한상대회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이사장은 "한상대회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 이바지나 지역경제인에게 비즈니스기회를 주는



설명했다.

한 이사장은 세계한상대회가 한상들의 경제 네트워크에서 벗어나 사회교육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라며 대표적인 사례로 한상기업 청년인턴제를 꼽았다.

그는 "국내 청년들에게 해외진출의 기회를 주고 한상기업에는 국내 우수 인재 채용기회를 제공하는 '한상기업 인턴십 현장면접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청년인재들의 42%가 취업에 성공했다"며 "전남도도와 여수지역 청년들에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전남농수산물, 품질 좋지만 트렌드 뒤쳐져"

스티브 윤 "소포장 등 고려해야"

"전남농수산물이 품질 좋은 건 알지만 트렌드엔 뒤쳐져 있다는 점은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를 맞아 22일 전남도가 준비한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에 참석한 한상들은 전남 농수산물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빼어난 품질은 인정하지만 변화가 없는, 시대에 뒤떨어진 디자인과 스토리텔링 등으로는 해외시장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며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 뉴저지에서 친환경 유기농 농수산물 전문매장 '유기농원'을 운영하는 스티브 윤 사장은 "전남농수산물이 예전에 우리 매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70%에 가까웠다면 지금은 40%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며 "품질이 최고라는 것은 알지만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것이 원인이라



고 본다"고 분석했다.

그는 "일례로 1kg짜리 된장이 있다면 이걸 1년을 먹어야 하는 양으로 소비자들이 너무 크고 양이 많다고 사지 않는다"며 "20~30대 젊은 층 등 소규모 가구가 늘어나면서 소포장 소포장이 요즘 트렌드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윤 사장은 이어 "소규모, 즉석식품이 요즘 대세라는 것을 해외수출을 고려하는 생산자나 업체들이 주목해야 한다"며 "편리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해외시장에 도전하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여수세계박람회장 전시회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는 한상 해외바이어 20명과 80개 국내업체가 참여, 1천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srb.co.kr

지방 정치

기한 내 감사자료 미제출 '태반'

최영환 의원, 시·교육청에 혁신안 주문

광주시의회 최영환 의원은 2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광주시와 교육청 등 2009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관 85곳 중 53%인 45개 기관이 기한 내에 감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자료 제출 기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자료 요구 외에 자료제출도 지방자치법에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됐으나 지난 15개월 동안 광주시에 요구한 자료 2천176건 중 날짜를 지켜 제출한 건은 1천810건(83%) 뿐이었고 교육청에 요구한 250건 중 제출 날짜를 지킨 비율은 172건(68%)에 그쳤다.

최 의원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는 행정 혁신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방치된 사유지 시민 위해 써야"

정순애 시의원 5분 발언

광주시의회 정순애의원은 (서구2) 22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상무지구 도심 한가운데 오랫동안 방치된 광주도시공사 소유의 유휴지를 시민들을 위해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따르면 폐쇄된 상무소각장 건너편에 위치한 이 땅은 약 4천700평의 부지다. 상무지구가 개발된 후 2012년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추진됐으나 반대 민원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 광주도시공사는 영구임대주택 건설이 어려워지자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립사업을 위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사업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다.

정 의원은 "바로 옆 상무소각장에 복합문화공간화를 통한 광주의 대표도서관과 세계적 건축물이 건설될 예정인 만큼 복합문화공간과 어울릴 수 있는 공간활용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시적이라도 공공주차장으로 활용하거나 생활체육인들을 위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고 촉구했다.

유대용기자 ydy2132@srb.co.kr

소중

중한

소금

정치후원

깨끗한 정치로 가는 길 이 됩니다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한국선병회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맑은 날도, 바람 부는 날도 한 발 한 발 밀고 나가면 길이 생기고

소중한 소금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배려로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는 정도(正道)를 걸을 수 있게...

소중한 정치후원금으로

밝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세요

정치후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전액 세액공제 < 이하 10만원 초과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세액공제